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Read) · 기도(Pray) · 감사(Give Thanks)”

연중 제18주일

2021년 8월 1일(제492호)

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TEL 925-600-0177 / FAX 925-237-8423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온라인 미사: 유튜브에서 'TVKCC mass' 검색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 단체	레지오 마리아: 온라인
	올드레야: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 시간	일시 중단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평일 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아세례	일시 중단	

입당\_33 봉헌\_210, 513 성체\_183, 506 파견\_19 / 해설\_손영채(아네스) 제1독서\_김지용(예로니모) 제2독서\_홍순미(테오도라)

입당 송 | 시편 70(69), 2, 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 탈출 16, 2-4, 12-15 Exodus 16:2-4, 12-15

화답 송 | 시편 78(77), 3과 47(23-24)와 54(24) 참조

Psalms 78:3-4, 23-24, 25, 54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The Lord gave them bread from heaven.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 들려주려 하노라. ◎

○ What we have heard and know, and what our fathers have declared to us, We will declare to the generation to come the glorious deeds of the LORD and his strength and the wonders that he wrought.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He commanded the skies above and opened the doors of heaven; he rained manna upon them for food and gave them heavenly bread.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 Man ate the bread of angels, food he sent them in abundance. And he brought them to his holy land, to the mountains his right hand had won. ◎

제2독서 | 에페 4, 17, 20-24 Ephesians 4:17, 20-24

복음환호송 | 마태 4, 4

◎ 알렐루야.

◎ Alleluia.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One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orth from the mouth of God. ◎

복음 | 요한 6, 24-35 John 6:24-35

영성체송 | 지혜 16, 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주 - - - 님 - - - 은 하늘의 양 - 식 을 주 - - - 셧 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최경선 다니엘, 최성희 클로틸드 가정,

황선웅 베드로, 이지원 소피아 가정

김종수 베드로, 김명애 프란치스카 가정

(김수일 쇼앤즈, 김수현 모니카, 김수철 에두아르두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윤정의 알퐁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0년대 신학생 시절에 남미 교회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새로운 신학의 성서적 근거인 '탈출기'를 읽으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강제 노역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가없이 여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야훼 하느님의 걱정과 연민에 열광하며 '세상에 열린 신앙', '사회적인 관심'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탈출기'를 영적으로 해설한 니샤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책 <모세의 한평생>(최익철 신부 역)을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이 책에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 뵈고 일치하는 여정에서 모세를 영적으로 '완덕(完德)의 정상'에 도달한 분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탈출기의 역사를 이 세상의 온갖 탐욕으로 노예 상태에서 사는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탈바꿈하고 성장하며 겪어야 할 영적인 투쟁과 수덕의 과정으로 해설합니다. '완덕은 영적인 진보에 있다.'라는 성인의 관점은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말씀에 도달하기 위한 지침서처럼 보입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페 4 22-24)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당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라고 촉구하십니다.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필

요로 하지만, 또한 인간의 본성 안에 깃들여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모든 갈망은 하느님께서 통교(communio)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인간의 마음 안에 심어주신 당신을 향한 향수(nostalgia)라고 하겠습니다.

“오 하느님,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열망을 찬미합니다!”(앙트안느 슈브리에 신부)

예수님께서서는 이 하느님의 목마름과 인간의 거룩한 갈망을 하나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5)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히브 11,1)이기 때문입니다.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KOREAN B.B.Q 영동 순두부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 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b>민주란 아우레아</b>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 5분 묵상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느님이면서도 스스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진정 인류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셨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유대인이 나치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모든 재산을 버리고 프랑스 파리로 피해갔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이 거리 저 거리를 서성거리다 한 거리의 빵집 앞에서 구수한 냄새만 맡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청년도 부러운 눈으로 맛있어 보이는 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한 사람이 나오더니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겨우 한 개를 사서 들고 나오더니 그것을 그 청년에게 주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사람들을 만나 그때 일을 들려주면서 “그 거지의 빵은 자기 생명을 주는 빵이요, 그 청년의 육체와 정신을 살린 하늘의 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교회 신학자 베르자예프(N. Berjaev)는 “내가 먹는 빵은 하나의 물질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 목자이십니다. 빵집(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우리말로 “생명의 밥”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생명의 밥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또는 재능이든 우리가 그것을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고 사용할 때 그것은 사랑으로 변화되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으로 변화하여 이웃들에게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 카카오톡 'TVKCC' 채널 추가하는 법

1. 카카오톡에서 검색 버튼 클릭
2. TVKCC를 검색한 후 채널추가 버튼 클릭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성 요셉의 해**  
**PROCLAMATION OF THE YEAR OF ST. JOSEPH**  
 기간: 2020년 12월 8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책성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

SUE CHO  
 CELL: 530-220-2848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慶 트라이밸리 한인 천주교회 성전 미사 시작 祝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저희는 몹시도 기뻐했습니다.”  
(시편 122,1 참조)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 온 공동체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의 기쁨과 영광을 나눕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11시 미사 참석자들을 위한 배려

- 11시 미사 참석자들이 성전 입구 통로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교중미사 후 담소는 가급적 통로 중앙을 막지 않는 위치에서 합니다.
-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출입문 근처는 출입자에게 양보합니다.

■ 북가주가톨릭성서모임에서 아래와 같이 (비대면/대면) 그룹성경공부 모집 안내

과목 (대상)	창세기 (전체 교우)	탈출기 (창세기 수료자)	요한 (마르코 수료자)	사도행전 (요한 수료자)	Eng.Acts (John 수료자)
요일/시간	월/오전	수/오전	월/저녁	화/오후	
	토/오후		토/오전	주일/저녁	목/저녁
시작일	8월 30일	9월 1일	8월 30일, 9월 4일	8월 31일, 9월 5일	9월 2일

- 신청: 조경아 글라라 (408-701-7144/nccblm@gmail.com)
- 모집 기간: 8월 한 달간 후보 공지와 함께 모집
- 각 그룹 교재비: \$10

■ 사랑의 모후 꾸리아 8월 월례 모임

- 일시: 8월 5일(목), 오후 8시 - 9시 30분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 참가 방법: 꾸리아에서 지정한 Zoom 미팅 (ID: 674 039 3221, Password: 320860)
- 준비물: 묵주, 레지오 교본, 기도문

■ 소중한 성전, 소중하게 이용합시다.

- 오랜 바램과 기도 끝에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선물하신 성전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 청결 유지에 신경 씁시다.
  - 사용 중 시설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성전 내에서 정숙 합시다.

■ 제단체 모임 장소

- 7월 11일 이후 St. Elizabeth 성당 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미사와 주일학교 용도로 한정됩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각 단체 모임은 종전처럼 센터를 예약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 의무 관련 조치 종료

- Pandemic 이후 시행되어온 주일 미사 참례 의무 관련 조치는 8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즉, 8월 15일부터는 주일 미사 참례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844	\$182	\$3,980	\$120	\$130	\$6,256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은경(8), 두신(5,6), 류경걸(7-9), 박종균(1-12/2020), 송형철(7), 이재실(7-9), 이정(1-6), 조윤나(7,8), 지택근(7-9)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류경걸(7-9), 이재실(7-9), 지택근(7-9)
- **Bishop's Appeal**  
두신(5,6), 류경걸(7-9), 이재실(7-9)
- **성전마련 헌금(Building Fund)**  
고문순, 고은경, 이종구
- **감사헌금** 배정수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교회 Intention for Evangelisation: The Church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for the Church, that she may receive from the Holy Spirit the grace and strength to reform herself in the light of the Gospel.

■ COVID-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각 가정에서, 성당에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0분
- 평일(화, 목, 금):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